

농지연금 가입 2만건 돌파...2만번째 가입자 가평 김광식 씨

✎ 이병성 기자 | ⓒ 승인 2022.04.29 19:00 | □신문 3389호(2022.05.03)4면

[한국농어민신문 이병성 기자]



경기도 가평의 김광식 농업인이 농지연금에 2만 번째에 가입했다.

한국농어촌공사는 농지연금 가입이 2만 건을 돌파했다고 밝혔다.

농어촌공사에 따르면 2011년 처음 도입된 농지연금은 현재까지 9057억 원이 집행됐으며, 2022년 3월 기준 월 평균 97만 원이 지급되고 있다. 이런 가운데 경기도 가평의 김광식(64세) 씨가 농지연금 2만 번째에 가

입했다. 그는 '전후후박형' 상품을 선택해 10년 동안 매월 234만 원을 수령하고, 이후부터는 164만 원을 받는다.

농어촌공사 경기지역본부 연천·포천·가평지사가 개최한 기념행사에서 김광식 씨는 "농지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연령이 60세로 조정돼 연금에 가입했고 생활비 걱정 없이 안정적인 노후를 보내게 돼 든든하다"고 소감을 밝혔다.

농지연금은 올해 2월부터 가입 연령이 만 65세에서 60세로 낮아졌고, 5년 이상인 농업인이 소유한 농지가 공부상 전·답·과수원으로 실제 영농에 이용 중이면 가입할 수 있다. 특히 담보농지는 계속 경작하거나 임대해 추가 소득을 올릴 수 있다. 6억 원 이하의 담보 농지는 재산세가 면제되고, 월 185만 원까지는 압류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수급 전용계좌를 적용하고 있다.

한편, 농지연금 상담이나 가입은 전화 1577-7770, 농지은행 누리집(www.fplove.or.kr), 한국농어촌공사 전국 지사에 문의하면 된다.

이병성 기자 leebbs@agrinet.co.kr